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1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인쇄업, 기술·자금난 악화일로

인쇄문화시보는 1954년 11월20일자(제214호) 1면 머리 기사를 통해 인쇄업계의 최대 불황을 기술·자금난이라고 지적했다. 시보에 따르면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영등포에 설치된 교육서인쇄공장이나 몇몇 특수 공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활판 인쇄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시보는 모든 시설의 소실에 따르는 자금의 고갈과 함께 기술자의 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술·자금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선처를 부탁했다. 특히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인쇄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게재했다.

## 인쇄업은 사치업종(?)

1950년대 중반은 인쇄인들이 일처단결된 목소리를 드높인 한 해로 기록됐다. 인쇄문화시보는 1956년 11월10일자(제244호)를 통해 인쇄업을 보호하자는 업자들의 입장을 의미있게 다뤘다. 시보에 따르면 인쇄업 종사자들이 당국에 제시한 호소문을 분석하며 특별행위세 등 불필요한 세목을 폐지시켜 달라는 문구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호소문에는 출판·인쇄·제본 업체들은 마땅히 보호돼야 하는 국가의 근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업과 동일시 돼 기본적인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업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특별소비세와 세목·율이 유사한 특별행위세는 부과율이 너무 과다해 기본적인 활판 인쇄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같은 해 특별행위세는 세목은 존속하는 대신 기존의 징수 세율이 20%로 조정됐다.

## 신문용지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

신문용지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인쇄업계의 타개책이 제시됐다. 1965년 11월30일자(제308호) 인쇄문화시보는 신문용지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계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수요단체가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시보는 가수요 및 가격조작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권한을 실질 수요 단체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제시했다.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입장을 인용한 시보는 이처럼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

족한 현실이 지속될 때 업계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국신문발행인협회의 움직임을 동시에 다루며 정부 당국의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쇄요금적정화위원회 신설 필요성 제기

인쇄요금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인쇄문화시보는 1969년 11월1일자(제396호) 보도를 통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인쇄업 요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게재했다. 시보는 특히 달력이나 전단지 제작 등이 급증하는 시기적인 성수기를 타고 요금에 대한 덤핑이 끊이지 않는 업계의 현실을 꼬집으며 '인쇄 업계의 백년대계'라는 문구를 통해 과당 경쟁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시보는 인쇄업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인쇄요금적정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조율하는 상위 기관의 존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인쇄기능공 양성 추진

1970년은 인쇄업종이 전문화를 추진하는 한 해로 기록됐다. 인쇄문화시보는 11월15일자(제421호) 보도를 통해 인쇄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본격적인 해로 만들어 나가자는 상공부의 취지문을 비교적 의미있게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이듬해인 1971년부터 매년 50여명의 인쇄 기능공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공부의 발표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만 국한된 인쇄 시장을 사회, 문화, 정치와 접목시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연차적인 사업의 일환

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 예서·세꼬체 등장

1973년 11월15일자(제465호) 인쇄문화시보는 신광문화사(대표 임광수)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서·세꼬체 등 신규 서체가 개발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시보는 개발 시점과 인쇄물의 다양화 경향을 접목시키며 '활자문화의 새로운 경지'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특히 종래의 활자체가 횡·자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미흡해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수요자들의 고급화된 입맛이 반영된 서체라고 평가했다. 이 서체들은 자획의 모양이 다양하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신광문화사는 3년전인 1970년에도 새로운 필기 서체를 개발, 보급해 온 업체로 시보는 예서·세꼬체 등장으로 활자체의 다양한 저변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사진식자기 개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 사진식자기가 개발됐다. 1976년 11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리노토론 606 CRT'이라는 기종명으로 출시된 이 식자기의 주요 제원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했다. '리노토론 606 CRT'는 활자크기와 선명도, 필름 진행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분당 최고 속도 3천행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이 식자기는 비직결방식으로 작동되지만 최신 PVT와 연결해 사용하면 온라인 작동 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보는 '리노토론 606 CRT'를 다루면서 국내 시장의 식자기 활용도에 비해 저변 확대가 이뤄지는 시기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